

[달고 오묘한 그 말썸 - 금요일]

십자가의 승리

1부 예수 그리스도

1장 세상의 구원자가 나타나심

- Ⅰ 세상을 바꾸는 신령한 메시지
Ⅱ 성육신하심은 역사적인 사실
Ⅲ 성육신과 부활

2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 Ⅰ 그 이름 '예수'
Ⅱ 그 이름 '그리스도'

3장 하늘나라의 메시지

- Ⅰ 예고하는 자
Ⅱ 왕
Ⅲ 천국
1. 천국, 그리고 그 모습과 형체들
2. 천국에 관한 복된 소식
3. 천국으로 가는 길

2 천국에 관한 복된 소식

예레미야스도서에서 한하니 메세지의 핵심은 바벨론을 1장 14절-15절에 잘 나타나 있다. “오한이 잡혔으니 예루살렘이 갈릴라이에 가서 한하니의 바벨론을 전파하여 거기대 때가 갔고 한하니 나라가 가가되니” 회개하고 배움을 받으라 하신다. 이 구절의 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천국’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다. 바울은 이 ‘천국’을 얻는 때는 ‘현재’의 존재로서 성령(20:25, 14:17, 3:2, 4:20, 3:30, 3:36, 4:11). 그는 바울에 도달한 나라 말한(2:30 63:9-10, 4:20, 5:20, 6:15, 1:10, 1:13, 1:16) 예루살렘 말파하는 ‘천국’은 ‘현재’의 지구(예루살렘) 및 ‘혹날’의 지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총망라하는 나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예루살렘 말파하신 ‘천국’은 이노아엘에 대해 국한되어 도화하는 장점이 아닌 나라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과 야방인 모두에게 이 나라를 전파했단 기록(2:20, 28:230). 예를 들면, 바울은 자신이 2대 넘게 야방인에게 가면서 행했던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는데, 한 가지는 한하니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20:20)과 다른 한 가지는 한하니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20:25)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천국’ 곧 한하니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하늘에 있었던 왕국이고, 새세토록 계속될 것이다. 또 다시 한하니의 영원한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을 천년왕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왕국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심지어 국왕사제나 유대인들도 천국을 말할 때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복령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영물 나그네 등 특별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통치도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을 거론하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국을 왕국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만 했고, 예수께서는 그 개념을 전면으로 반대하셨다(17:20-21, 눅 18:10). 만일 천국의 개념을 이 땅 위에서와 살기로 국한시킨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마 19:28, 롭 1:6-7).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천국 복음은 더 깊이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

첫째로, 복음은 오직 하나이다(갈 1:6-9). 둘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1. 자원의 탐사 - 먼저 자원의 탐사가 있다. 탐사의 단계와 함께 모든 피조물도 자원을 받았지만 37대, 4대 이후 피조물들은 인간의 지위 때문에 단편화되어 고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율법을 깨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들은 자기가 어떤 땅으로 갔을 때에 다려지고 자기를 밟아 짓밟는 슬퍼하는 자들이다(골 2:14). 그러자 그 때에 이르러 탄식하며 고통하는 피조물들도 모른 채로 다려지고 고통하여 왔으니 완전히 새롭게 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아담과 노아의 시대와 고레스 왕이 온전하게 새롭게 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이 될 것이다(마태복음 3:10-12, 요 10:25-26). 이렇게 하여 있게 될 새 생애와 새 믿음은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차서 356,710,100 모든 피조물은 주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날을 기다리고 있다(겔 36:26).

2. 우리의 탄식 - 피조물인 탄식은 것은 아니다. 생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령을 그리스의 영광을 바라보며 탄식한다. 아직 우리는 ‘색을 짓고 죽을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이 색을 짓고 살 뿐 아니라 생명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속지 아니함을 믿을 때’가 곧 그리스도께 있다고 전한 1550.4.5.55. 이 땅에 있는 우리는 탄식하며 그것을 간절히 시종내내 고후 5:2-3, 그리스도에게서 만물을 지기 위해 복복개 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몸을 자기 영의 옷의 형체와 같이 변게 해주시라 고사대(16) 3:8-22,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빛이

해서 복음의 원인이자 대언자(창 11, 15: 10), 셋째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존재이자자기 대언자(창 15: 19, 고전 9: 1) 댔고,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은혜가 복음의 장구(張句, 長句) 곧 복음의 생명이자 대언자(창 20: 24) 다섯째로,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복음이자 선물이자 대언자(렘 1: 1) 여섯째로, 이 복음은 전국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전국의 복음의 목적이자 대언자(고전 15: 28), 일곱째로, 이 복음은 영령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영령의 최종적인 결과는 모두 영명이자 대언자(딤후 1: 1) 여덟째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롬 16: 25, 딤후 2: 3), 우리의 복음(고후 4: 3, 살전 1: 5)으로 불렀다. 그들 모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그와 부를 수 있었다(갈 1: 1).

3.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가서는 깊은 심자사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구속 사역의 결단인 천국을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순종에 그 천국을 예도할 땅으로 있는 방법도 계시다. 다시 행해서, 자신이 결심 고통과 죽음도 감내해서, 배를 들어,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보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니 혼인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한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진 잔을 마시도 나 의 배는 채워질 만큼 수 있느니라”** 여기서의 알지 못하는 잔과 나의 배는 채워 질 만큼 수 있느니라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한다. 이렇듯 예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진에서 장자 사바이 당할 고통을 미리 알려주셨다바 16:21-23, 바 17:22-23, 마 20:18-19,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몸이 들리셨던 바 메셀리 산으로 십자가에 달려 몸이 들리자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셨다(3:14). 또한 예이 열 배를 값이 되셨는데 먼저 한 달의 일임이 땅에 떨어야 하는 것이요(3:15)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면 그 필요성을 역설하셨다(요 12:23-24, 26; 24:26, 43). 둘째로, 예수께서는 자신 스스로 자진(自願)하여 죽음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다. “하물 내게서 택했는 자가 아니냐 내가 스스로 버리고(요 10:18), 선택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있어 의미미있다고 말씀하셨다. 즉, 자신의 죽음이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된 죽음임을 말씀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살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살기려 함이니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요 20:28).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다(요 12:32, 24:46-47, 요 19:30). 어떻게 죄인들을 얻기 가능했는가? 예수께서는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양의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그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였다고 그들을 위하여 새 생명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양의 피니라”(요 20:28).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제자들은 자신을 원하고 자기 십자가를 끼고 거룩함을 따르오라니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한 데에,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한 그런 기적의 고귀함을 말씀하셨다는 기록들이 10:38, 14:27, 12:24-26, 26:13. 특히 14:26에서 자신의 죽음을 부활이나 영생과 연관시켰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 자신이 생을 사하셨다는 것은 본래 자기 목숨을 내어 위하여 목숨을 버리미(요 10:17). 예수에게 자신의 죽음을 버리나니 영생과 연관시켰었다는 사실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겠다는 말씀(요 2:18-20), 요나의 표적 이야기(요 2:30-40), 건국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이야기(마 21:42) 한말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비유(요 12:23-24)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온내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며, 오직 그것이 만민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간의 삶을 먹이 아시고 인간의 죄를 매서지 아니한 비록 속에 생명이 없으니 라"(6:53)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이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키면서 육과 같은 말씀도 하셨다. "그것과 생명을 위한 내 생물이 라"(6:51). 이것은 하늘로써 내려온 떡이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하리라"(6:58).

● 매 · 매 · 시 · 지
(롬 8:22-26)

인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과 같이 될 것이다(요일 3:2).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탄식은 결코 절망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탄식은 소망과 승리를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 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므로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롬 8:24-25).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도 영혼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소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며 영혼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기다려야 한다(1사 9:24).

[illegible]

지 · 난 · 수 · 요 · 예 · 배 · 매 · 시 · 지

세 분의 탄식 (롬 9:1-5)

! (로 8:22-26)

11-11-11 (B-22-20)

What Is Real Love?

*"Let love be without hypocrisy. Abhor what is evil; cling to what is good"
(Romans 12:9)*

Many people, church people, don't understand the meaning of real love. Their understanding about this subject centers on worldly, not godly perspectives. They sincerely think real love is political or romantic, and gives way to compromises. My dear friends, real love hates evil. Real love grasps God's Word, and sticks to truth. Every deed and every word that falls short of hating evil and loving good is not genuine love. It is an artificial, deceitful, and dishonest action. It is hypocrisy! Let's open our hearts and minds to hear God's Word, so that we can truly love in God's way. Let's be real lovers, not hypocrites.

Paul was a godly man who understood real love. He clearly and honestly delivered today's message to the church at Rome. Listen to his heart. "I am telling the truth in Christ. I am not lying, my conscience testifies with me in the Holy Spirit"(9:1). He is talking to believers, not regular people. He's relating God's truth to born-again Christians. He explains, "It is not the children of the flesh who are children of God, but the children of the promise are regarded as descendants"(9:8). In other words, God's children are those who know Jesus. For it is through the blood of Jesus that humans become the promised children. Therefore, those who belong to this earth, who forgive and care for each other, but don't know Jesus, are not God's children.

Paul's advice is strictly for God's children. He pleads with hi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herefore I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12:1). He's giving believers the principle, not the method, of their duty. As new creatures,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was given to us"(5:5). Many Christians who claim love are actually loving and forgiving the devil. That's not right! You can't compromise with Satan or his demons. You can't be politically correct in the midst of sin. God's love places us in relationship with Him. As such, we need cleansing through His Son's blood, for only Jesus saves His people from their sins(see Mt. 1:21). We need to act holy. We need to love genuinely.

If you really relate with God through Christ, if you don't compromise, if you aren't a hypocrite, no one or nothing can cut you off from His love. Paul says,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8:37~39). Amen! My friends, God is righteous. You cannot be unrighteous and relate with Him. If you confess your sin, His grace, His love, will always be with you.

When you love other people, love God's way. Don't be a hypocrite. Paul says, "Love does no wrong to a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13:10). Too many people take advantage of

others under the name of love. If you want to share God's love with other people, you have to be dedicated to God's Word. Since we are living in this society, love others will involve a variety of people. As such, you can't believe what they say. Paul warns us,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12:2). Many different religions practice love, peace, and justice. You can't believe in other spirits, you have to believe only in Jesus. Everyone believes his or her religion has value and is the best. They think they are clean through its practice. Don't believe it. They may talk about good stuff, but don't get confused. The Buddhists, Muslims, and Hindus don't recognize Jesus as their God. The Bible tells us, "By this you know the Spirit of God: every spirit that confesses that Jesus Christ has come in the flesh is from God"(1 Jn. 4:2).

If someone doesn't acknowledge Jesus as their Lord and Savior, don't believe what they say. They are anti-Christ. Other religions offer good things, like respect, good conscience, and morals, but all these things are worldly. They existed before Jesus' incarnation. They don't lead to heaven, they lead to hell, to death. People will talk the good talk, but understand that only Jesus Christ leads to eternal life. God's Word says, "They are from the world; therefore they speak as from the world, and the world listens to them. We are from God; he who knows God listens to us; he who is not from God does not listen to us. By this we know the spirit of truth and the spirit of error"(1 Jn. 4:5~6). It also says, "By this the love of God was manifested in us, that God has sent His only begotten Son into the world so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1 Jn. 4:9).

Jesus is the way, truth and life. Salvation is through Him alone. "Whoever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is born of God, and whoever loves the Father loves the child born of Him"(1 Jn. 5:1). We share this love with each other. When we love God, we obey His Word. We become His children through our faith in His Son. Let us always remember,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1 Jn. 5:12).

Real love discerns what is holy and what is not holy. Jesus' message to the church in Thyatira reminds us of this, "I know your deeds, and your love and faith and service and perseverance, and that your deeds of late are greater than at first. But I have this against you, that you tolerate the woman Jezebel, who calls herself a prophetess, and she teaches and leads My bond-servants astray so that they commit acts of immorality and eat things sacrificed to idols"(Rev. 2:19~20). This church wasn't practicing real love. That's why Paul gives us the fundamental principle: Let love be without hypocrisy. Abhor what is evil; cling to what is good. We need to be careful of our own self-righteousness. My friends, we must deny ourselves and be followers of the cross. That's the way of faith. That's real love!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롬 12:9)



김성팔 목사

참된 사랑이란

참된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에서 ‘참된 사랑’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이해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정략적인 것 또는 낭만적인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진지한 태도로 참된 사랑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관점을 따르는 까닭에 그런 식으로 세상의 관점과 타협해 버리고 맙니다. 참된 사랑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에 충실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인위적이며 기만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지성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 잘 들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바울은 참된 사랑이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롬 9:1). 지금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신자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 줍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서로 여기를 받느니라”(롬 9:8).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곧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원리를 말하는 바울

원리하게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여기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의무의 본질과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면서도 실제 삶에서 는 악을 사랑하고 악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은 사탄이 나 마귀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정략적으로만 올바른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때문입니다(마 1:21참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참 백성이 누리는 복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다면,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만일 여러분이 위선자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굴욕이나 다른 아무 꾀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7-39). 어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마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만 해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믿어서는 안됩니다. 바울의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다른 여러 종교들도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영들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만이 참이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종교 생활을 통하여 정결하며 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혼란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불교인들, 이슬람교인들, 그리고 힌두교인들도 선하고 훌륭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요일 4:2).

결 모양만 그럴듯한 사랑

만일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의 주장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도 여러가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따르면서 도 사람들보다 존경받을 수 있고, 양상에 평안을 누릴 수도 있으며, 율리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지욕과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훌륭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일 4:5-6).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나니 사망에 이도 하나님께 우리의 동행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일 4:9).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의 모든 내인을 사랑하시는 자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요일 5:20). 우리는 또한 이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도록 합시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참된 사랑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뚜렷하게 분별합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네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마음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계 2:19-20). 이 말씀을 보건대, 두아디라 교회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았습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씀함으로써 우리에게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을 내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背하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요 참된 사랑입니다!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9월 16일(화)~9월 24일(수)	우즈베키스탄	13교구 7지역	장철규
9월 16일(화)~9월 26일(금)	네 팔	1교구 5지역	김창국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9월 5일(금)~9월 13일(토)	스리랑카	5교구 1지역	이지은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니

김범진 (청년부)

8월 4일 월요일, 오전에 '마탈레'라는 지역에서 세 조로 나누어 노방전도 및 축조전도를 실시하였다. 우리 조는 한 시간 반가량 전도하고 우리 승합차에 도착해서 다른 조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했던 모임 시간 10분 전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정체불명의 승합차 두 대가 달려왔다. 그리고 출입문이 열리더니 중들과 그들의 수하들이 내려서 우리를 포위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에 신분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이 평장회 화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목에 걸려있던 전도지를 떼었다. 그들은 우리의 가방을 뒤져서 남은 성경책을 전도지를 모두 압수하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보는 큰 길에서 전도지와 성경책을 불태웠다. 그들은 상당히 흥분해 있었다. 우리가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던 군중심리가 발동하여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다. 거리에 널려있는 찢어진 전도지를 손에 들고 우리를 조롱하는 스리랑카 사람들. 힘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위협을 가하는 불교도들. 논리와 이해가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다.

속소로 향하는 길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니는 둘 중에 한 분이다. '위험에 대한 원인 제공자' 혹은 '위험을 내버려둔 방조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였다. '하나님 저기 불타고 있는 전도지와 성경책들은 이곳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숨겨 가져온 귀한 것들이 아닙니까? 전도지가 더 있어도 아쉬울 판인데 그것들이 태워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손해 아닙니까? 전도에 더 방해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침묵만 하십니까?'

속소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마음으로 팀원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다. 그 때 우리의 이사가 45:7절과 디모데후서 1:7-8절 말씀을 보았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니 나는 어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라'(사 45: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긍지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간절히 간히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7-8).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에 행하여지는 일들임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평안하고 좋을 때는 쉽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리 계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평안만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까지도 주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힘이 사단의 힘에 눌려서도 아니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이긴 것도 아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위협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팀원들 모두가 동일하게 해석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팀원들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는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복음의 전도와 바울이 매맞고 옥에 갇혔는가? 그가 당한 어려움의 1/100에도 미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나의 신앙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다. 그 사건은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반성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전도할 때 삼가지여야나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의 노방전도가, 사람들이 한적한 숲 속 마을이나 주막가에서는 축조전도가 효과적임을 알았다.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다. 전도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행동과 말은 주위 사람들에게 편지처럼 그대로 전달되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다. 나는 현재 참 진리와 신한 내용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씩씩빠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쓰레기를 전하는 편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의 위치에서 아무 내용도 전하지 못하는 백지편지가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넘치는 은혜를...

윤병식 (집사, 7교구 1지역)

단기선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네팔로 떠날 때 준비한 것은 오직 주님에게 드리는 기도와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신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역자와 렌트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비인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시며 숙박시설과 렌트카와 통역자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감사함을 아직 주님을 영접치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아득히 전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주 사역을 인도와 집한 국경 도시인 '빌간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속소로 오가는 길에 있는 여러 지역에 노방전도, 학교 전도, 병원전도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참 아름답고, 순수하고 다짐을 받았습니. 어떤 사람은 자신은 헌도자를 믿는 사람이지만 당시들이 믿는 주님을 알고자 하니 당신이 경험한 주님을 말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암λεκ칸지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그곳 교사에게 우리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니 수업을 중단하고 전교생 250여명을 모아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준비해 간 성경이와기와 찬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내발 학생들처럼 주님을 감당하고, 말씀에 은혜받은 학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헤어질 때 손을 흔들며 작별을 아쉬워하던 그 학생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또 병원에서 주님을 소개할 때 또한 표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말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리 예매하신 영혼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다른 병원에 사역하러 갔었는데 그곳은 병원이리라기 보다 환자 수용소같은 곳이었습니.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된 어린 아이의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김소할 석고 없이 병대로 묶고 두 다리를 하늘로 향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육체의 고통을 덜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긍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곳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입에 사랑을 물고, 신발에는 자갈을 넣어 신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입 속에 있는 행복은 모르고 신발에 들어있는 자갈만큼 불행했던 나는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주신 만가지 복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부르시는 곳은 어디라도 갈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일설교 후기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창 3:8~10)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자기를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뜻 외에 우리 자신의 의지를 올려놓곤 합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친밀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지었고 자신들의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시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열매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력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무시하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이런 영성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 권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화해시키려 하십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아주셨습니다. 숨지 말고 진리를 볼드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은 자신의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그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리 값고, 큰 죄라도 씻으실 능력이 있습니다. (백윤하)

나 아니면 전 사람은 죽는다!

이 재욱 (대학부)

'나 아니면 전 사람은 죽는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며 선교를 갔다.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지쳐서 쉬고 있을 때, 내 걸을 지나치는 영혼들이 있었다. 그때 나의 이 생각을 떠올리며 되돌아 달라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스리랑카의 선교는 내 마음했던 것만 많이 달랐다. 콜롬보에서 차를 8시간이나 타고 가야하는 먼 곳이어서인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 몇 백명이 한 자리에 모여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저 우리나라의 시골 풍경 같았다. 내가 갔던 '모나라가'는 중심지와 많이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해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미소지으며 끝까지 들어준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척하며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통역관이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를 생각해서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선교 가기 전 몇 모임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인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물어보면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하신 말이 기억난다. 첫째 날엔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통역관을 비롯한 현지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둘째 날 전도하기에 앞서 통역관에게 '정말 마음으로 믿으십니까?'라고 다시 묻자, 당황하고 눈치를 보며 대답하기를 피했다.

언어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 더 깊게 설명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다. 그러나 부족한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돌아왔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전했기 때문이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 나라에서 전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비해 못나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도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한국에서 전도할 때 사용했던 설교는 문장들을 적어서 통역관에게 물어보고, 그 문장들을 사용한다면 좀더 깊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순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과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나는 그렇지 못해서 회개하며 많이 깨지고 돌아왔다). 주일에는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 교인들이 눈물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느꼈 수 있었다. 그곳에 다시 갈 때는 마을과 학교에 있는 많은 불상은 사라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길 바란다.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담담하게 전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후, 그 담담했던 나는 어디로 갔는지 내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는 그때처럼 선물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나는 믿음의 부족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지만 아직도 나의 믿음은 연약하다.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한다. 삶 전체가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기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자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내 주위의 영혼들은 죽기 때문이다.

충현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인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과 함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나타난다. 한 개인, 교회, 국가가 한 개인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통 너머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생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려하는 것, 나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아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복음과 관계 없이 상징적 의미로만 받아 들였다. 주님의 십자가는 창조주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인간 구원 역사의 구심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 된 모습 중에도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깨닫게 원하셨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 인간들의 범죄는 계속됐고,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오실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해방하는 참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다. 십자가로 죄를 도말하고 진리의 길을 열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자녀로서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짓고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34)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생명을 부여 받았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 즉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복음의 역사를 인간에게 주신 분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 없이는 생명도 없다. 호흡이 있는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이다. 그곳에 썩어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세워질 것이다. 생명은 움직인다. 육에 속해 죽어있는 인간이 십자가로 인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간다. 십자가를 바로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자 한다.

김혜진(장학선)

오직 말씀으로

세상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율법

인간의 죄성은 율법을 줄이거나 더 늘린다. 혹은 오해하게 만든다. 율법을 줄이든 늘려든 오해하게 되든 그렇게 변한 율법들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율법은 완전한가? 성령에 있는 율법만 모두 그대로 지킨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아담과 죄인들은 성령에 있는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자라게하지는 않는다. 율법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 율법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것들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킴에 더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그에 대한 행동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범에 대한 규범을 또 만든다. 그러다 보면 율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법률을 개정하기도 하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기도 한다. 이 또한 율법이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문명 속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실천 사항을 또 만들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시대에 걸맞지 않은 율법들을 없애버리기도 한다. 동성애자들이 성직 자라 임명받는 사건들을 보면, 혹은 변형되기도 한다.

율법의 역원은 인간의 죄성을 해결 하려고 세상에 구원부여 주의 은혜를 느끼게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쓰이지 만약 행위로 인간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율법이 쓰였다면 그야말로 바다를 먹물살아 써도 부족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품는 자들은 계명을 다 지켰으니 구원을 받았느니라"(마 5:28)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마음에 율법을 품지 말라는 또 하나의 계명을 주신 것인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인가? 부자 정병이 '자식은 계명을 다 지켰으니 구원을 받았도 무릇이 필요하나 그 물결을 때'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산을 다 나누어주면 구원에 이르는 의미인가? 이것은 율법의 불완전성과 인간의 율법이 죄성을 어찌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율법에는 새로운 답을 제시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러 함이로다'(마 5:17). 율법은 불완전하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것을 완성시킨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율법의 의지하는가? 우리는 삶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은 곧 율법이라는 공식을 자주 성립시킨다. 십자가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율법을 우리 삶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해야 하는데 마치 착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하며 정죄한다. 우리는 율법을 폐지하여 맞을 때 지킬까 고민해가는 안 된다. 율법을 폐지한 십자가가 보여야 한다. 그 십자가를 품으면 율법을 의지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진다. 다음 주에는 '십자가를 품는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복음과 율법의 관계' 참조 (권오섭)

떠난 자의 고백

♫ 다음 주일 찬송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이 찬송은 에드윈 오텔로 엑셀(Edwin Othello Excell, 1851-1921)이 작곡하였다. 그는 1877년부터 1883년까지 6년동안 음악 사범학교를 다녔고 이때 조지루트와 그의 아들 프레드릭루트(Frederick W. Root)에게 음악을 사사했다. 1883년에 그는 시카고로 이사하여 संग기 출판사를 시작했는데 매우 널리 사용되었다. 작시자는 존 맥로린(John J. McLaren)이고 작시의 동기와 배경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 1절: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 내 정성을 받으소서
- 2절: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주 귀하신 생령까지 다 주시니
내 찬한 몸 이 생명을 왜 아까라
- 3절: 주 예수여 빛진 것이 한 없건만 나 주 위해 깊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 4절: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써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 5절: 주 날 위해 주 귀하신 몸 버리사 내 몸을 피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령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의 크나큰 사랑은 우리의 전부를 드러도 보답하기에 부족하다는 본단 헌신의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

(찬양위원회)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봉사위원회의 주안으로 교회 안팎을 정리하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시간이 갈수록 각 지회에서 교회 구석 구석을 쓸고 닦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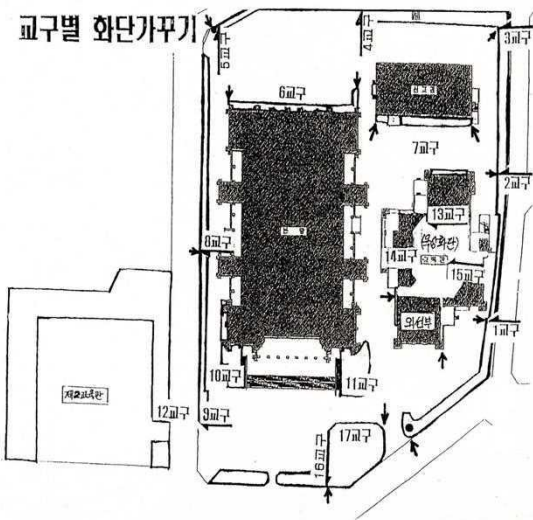
우리 교회는 건물외 코디보니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구석을 깨끗히 쓸고 닦는 일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모든 곳에 봉사의 손길이 있다. 소망부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본당 외곽 뒤 현금봉투 꽃이함을 정돈하여 항상 정리된 모습을 갖추게 하고, 각 교구 투디자 전도회는 본당 외곽 시트를 권사회는 갈릴릴리 시트를 닦는 등 여러 지처서 말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난 달부터 봉사위원회가 교회외의 구석구석의 구획을 나누어 각 지회에 할당하면서 더욱 활기를 띄고 있다.

이런 조그마한 일들을 통하여 은 교회당 안팎이 깨끗해지고 많은 사람이 기분 좋게 교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누구든지 이 활동에 참여하여 피차간에 즐거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봉사 활동은 정해진 부서별로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자원봉사 하기 하루 전에 사무국에 연락을 하면 그 날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준다.
- 각 지회별 자원봉사 구역은 봉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 교회 주변의 화단은 각 교구로 할당하여 교구에서 관리한다.

교구별 환단가꾸기



“병원 진료실에서 중환자실의 한 환자 보호자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환자는 오래 전에 탈북했던 사람이고 보호자는 아내입니다.

전도자: 예수님을 아세요?

보호자: 모태신앙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지금은 다치지 않습니다.

전도자: 모태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네요?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불완전하지요, 공산중인 지역은 돌아서 가잖아요? 사람도 한국에 이를 때까지는 모두가 공산중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보고 교회다니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그 실망에서 벗어나실 거예요.

보호자: 저도 교회 다니는 초신자들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말했는데 직접 당하고 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은 고맙지만 쉽게 가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전도자: 마음에 난 작은 상처 때문에 자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그 분은 전 우주를 창조자재한 한 명과 바꾸지 않으신 분이예요, 자매님이 그분의 손을 잡았고 그 분이 자매님의 손을 잡은 이상 그분은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은 강한 분이니까 자매님이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고 당겨주실 거예요.

보호자: 제 상처는 생각보다 커요, 충언교회뿐 아니라 어떤 교회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상처는 회복되지 않아요.

전도자: 상처는 교회나 사람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린 언제 다칠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남편이 저렇게 다칠 것도 알 수 없었잖아요? 자매님은 자신들이 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삼때문에 영원히 자옥에 가시겠어요?

보호자: 하지만 남편이 북에서 온 사람이라 유물론도 강해요, 종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도자: 먼저 믿으세요,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요? 먼저 믿고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하세요, 저도 대학시절에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고 싫어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 제가 지식으로 충만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무시한 것이라는 것 알겠어요,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는 유물론도 무너질 거예요.

보호자: 유물론이 그리 만만치 않아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들도 여기서와 같은 종교의 개념이 아니라 유물론 안에서 이해되는 교회래요, 그리고 지금도 힘들고 신장을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기에는 제 정신이 너무 없어요.

전도자: 이 땅의 일에 집중을 하나 신장을 일이 많지요?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자매님을 영원히 구원하시길 원하시지요, 예수님은 자매님을 이 땅에서 잘 살게 해 주려고 죽으신 게 아니예요, 영원히 잘 살게 해 주려고 죽으신 것이요.

보호자: 그런 말들은 너무 막연해요.

전도자: 그럼 성경을 볼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네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사 43:4).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히 11:17)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리”(롬 8:36,37). 하나님은 자매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대서 어떻게 하겠는지 그리고 자매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 있어요.

보호자: (눈물)

전도자: 염려 말고 고난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을 얻으세요.

보호자: (울면서) 남편의 정신이 제대로 망가지지 않을까, 다시는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쩌나 불안하고 걱정되요.

전도자: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님께 맡기고 영혼을 생각해요, 영생을 얻어요.

보호자: (눈물 평평, 끔찍하다)

전도자: (기도)

“이 자매와는 다시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매와 환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시로, 골고루,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유지부 문준혁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외가에 가면 할머니께서 콩나물을 기르시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할머니는 좁은 방 안쪽에 자리잡은 기다란 콩나물 시루에 수시로, 골고루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물을 뿌리셨다. 아침에 일어나 시루를 덮고 있는 가판 보자기를 들춰 보면 콩나물의 길이가 지난 밤보다 훨씬 길어져 있었다. 나에겐 참 신기한 일이었다. 물을 뿌리는 즉시 빠져 나왔지만 콩나물은 자라고 있었다.

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할머니가 기르시던 콩나물이 떠오른다. 예배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보다 분주히 움직이고 장난치며 그 시간을 견뎌내는 준혁이의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콩나물이 자라는 이치가 새삼 떠오른다. 올해 들어서 준혁이는 성경이야기대회, 성경암송대회, 성경퀴즈대회 등 각종 행사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물을 주고 달랠 때 예배에 참석했던 지난 해와 사뭇 다른 모습에서 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마음이 뿌듯하다.

또 준혁이는 요즘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기쁨에 젖어 있다. 며칠 전에는 갑자기 "아, 열년 성가대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성가대에 서지 않으려고 죄를 부리던 녀석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유아부에 다니는 동생 준아와 함께 서로 자기가 찬양을 더 많이 연습하려고 경쟁을 벌인다. 한 달에 한 번씩 친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도 성가대를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의 힘도 있었지만, 그동안 준혁이 믿어주셨던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준혁이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물과 정성이 되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그분들의 헌신으로 더욱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준혁이에게 수시로, 골고루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사랑을 부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다.

교사로서, 부모로서

박 진 수 (영아부 교사)



1.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지난 1995년 4월 아내의 전도로 출현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후 절기마다 인형극과 성극으로 봉사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2. 자녀양육과 신앙 사이에서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영아부에서 봉사하느라 바쁠 때 둘째 지우가 함께 있어달라고 보채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을 만만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를 울보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일지 하고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3. 영아부 떠매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영아부에서 학부형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사로도 봉사하면서 출현교회에 정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성숙한 부모의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4.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 주신 적이 있나요?

부끄럽게도 따로 시간을 내어 읽어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 시 함께 말씀을 암송하거나, 성경동화책을 읽어줍니다.

5. 자녀가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자라길 원하시나요?

어디서든 주님을 당당히 전할 수 있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섬길 줄 아는 지인인과 지우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6. 공연을 하시는 이유, 목표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우연한 기회에 아동극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다는 보람으로 일단해보니 어느새 직업이 되었습니다.

LMTCC교육을 받고 발광대사이고 다 다음 해 스텔라카를 다녀온 후 '참 귀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주님을 재밌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회 뿐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작은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에서도 극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 그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선교국 봉사를 늘 함께 하실 분들이 계셨으면 합니다. 교회내 절기행사 때뿐 아니라, 주님을 알기 원하는 곳 어디든지 인형을 들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순으로 함께 준비하실 분들을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의 제복이 있다면 가족의 건강과 몇 년 전 일 수술 후 아직 앞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신 장모님의 회복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대원 기자)

하나님과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며

양 미 숙 (유아부 총장님 김정선 영아)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다닌 지도 벌써 7년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아이가 유년부이고 작은 아이가 유아부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작년대 올해처럼 교회를 열심히 한 다닌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건디기 어려운 큰 일이 생기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잘 이겼지만, 우리 부부는 참 건디기 어려웠습니다. 당당히 아이들도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많이 괴로웠습니다. 주말 밤이 되면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러한 갈등조차도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이의 유아부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자신의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 해 주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함께.

그날 밤 초저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부부가 아직은 아픔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에는 유아부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작은 애도 점차 좋아지고 있고 저도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 회고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생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순종하시는 예수님(마 26장)

"예수께서...갓세마네라 하는 곳에...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라"(마 26:36,37).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육체 고통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38절). 예수님은 죽을 앞에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인간이 지닌 모든 시험을 그대로 겪으셨으나 죄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홀로 버려 두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제자들은 지켜드리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십자가 수난을 앞두고 세 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39,42,44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39절) '꼭 내가 이 죽음의 잔을, 저주를 잔을 받아야 합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제발 저에게서 이 잔을 옮겨 주세요.' 주님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귀하고 위대합니다. 광야에서도 그랬듯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마지막 시험을 기도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이르러 십자가의 길을 택할 필요는 없는 거야. 세상과 타협해, 처참한 십자가 방법이 아닌 영광된 방법만 있어두지 않잖아? 광야에서의 사단도, 멋진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16:22,23)도 모두 죽음을 피하려고 하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 육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땅에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지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고난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게 그렇게 당부하셨지만 들어맞을 때 그들은 모두 잠들고 있었습니까. 누가 이처럼 잘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해, 심판에 대해 무던 자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그 때문에 그토록 처절히 싸우시는데, 정작 죄인인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죄와 타협하게 되어 죄에게 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마지막 시험 때 갓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죄와 얼마나 싸우고 있다고? 죄와 피흘리기까지 기도하러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죄와 싸움 거름도 없이 넘어지지는 않나요?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하면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는 다릅니다(42절). 첫 번째 기도는 달리고 고난의 잔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인성(人性)의 갈등을 넘으신 철저한 자부인과 완전한 순종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일 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정이 같으신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와 자고 쉬라..."(44,45절).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기도를 중단하고 제자들에게 가셨으니 그 때마다 그들이 잠든 것만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깨어 있나요? 자고 있나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관현원 기자)

교회 소식

모임

1. 정기 대회
일시: 17일(수) 수요2부 예배 후
장소: 평화실
2. 갈릴licant회 할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본당 112호
3. 관사33회 할례회
일시: 17일(수) 수요2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발세

1. 박용실 성도 발세에 안수집사의 부인, 유혜자 권사의 서사, 17:00 주일공양회/9월 6일 밤세, 9월 8일 장례

결혼

1. 김광범 권김정자 집사, 김영남 김사의 아들, 17:00 주일공양회 할례회 권사의 딸, 22:00/9월 19일(토) 13:00 장례
2. 민지희 김연정(장사, 윤상자 권사의 아들, 일산동원교회)와 김영일(장사) 안수집사, 신은수 권사의 딸, 10:00/9월 20일(토) 13:00 일산동원교회 (☎04-904-2281)
3. 서승호 권희숙 집사의 아들, 1:00/과 이미진 딸(이영우 씨, 조병숙씨의 딸)/9월 20일(토) 18:30 리버라호텔 3층 벨로룸(☎54-3111)

◆ 동사들교회 제 64회 정기노회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목사 고시 청원 (감도서로서 목사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② 감도사 인허 및 고시 청원
 - ③ 전도사 고시 청원
 - ④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 (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 ⑤ 신학 계속 청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 제출마감: 2003년 9월 18일(목)까지
- 접수 및 문의: 사무국 총무과(☎ 552-8200 #404)

◆ 교회설립 50주년 기념찬양예배

가 간: 8월 31일(주일)부터 9월 21일(주일)까지
시 간: 주일 찬양예배(7:00) 장소: 본당
9/14 별첨: 고등부 연합찬양대, 별첨: 고등부 연합오케스트라
9/21 아련 찬양대, 오케스트라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주일)
설교자/기도자	류병희/김영길	이종철/김성호	김영훈/이종원	여국근/정원근	김교성/석영식	안장덕/전희호	고광환/김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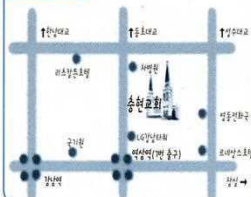
예배 담당안내 (9/17-9/21)

날짜	예배	예배찬양대	사회	기도	설교
9/17	수요 I		여성기	최영순	그리스도인의 환경(요 17:12-21) 김성관 목사
9/17	수요 II		류병희	김영희	율법의 시작(갈 3:17-19) 정현민 목사
9/19	금요일기도회	특별찬양(소프라노 장정희/안수집사 장영남 11교구)	이종대	이종대	김성관 목사
9/21	주일 I		위건광	차신득	사랑에 무엇이 없나(롬 12:9) 김성관 목사
9/21	주일 II	심자가 군병들이 외/씨아울린 김소현(고등부 오케스트라 악장)	서광진	김영은	참된 사랑(롬 12:9) 김교성 목사
9/21	주일 III	예수 나를 위하여 외/한아름주(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여성기	박관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롬 12:9) 김성관 목사
9/21	주일 IV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외/소프라노 이하나(할렐루야 찬양대 솔로리스트)	나광영	최지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롬 12:9) 여국근 목사
9/21	주일 V	갈보리산 화해 외/비르나 오봉근(별첨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용덕	최무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롬 12:9) 김성관 목사
9/21	주일찬양		이희식	이계인	환난 중에 승리하는 교회(제 28-11) 방종영 목사

충현기도의 창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성지시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동료로 사용하시어 주를 사.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한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힘쓰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와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교구별 대산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에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전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속력과 열망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 소식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신교목회장 7교구장 담임 목사 목회자 교육부장
- 최대원 엄필성 강요홍 이 훈 남선우
목회자부장 신교목회장 구청장 목회자부장 목회자부장
- 정운석 봉영길 조인재 김종국 최무길
교육부장 신교목회장 목회자부장 목회자부장 목회자부장
- 김전세 이상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이병욱 안종욱 임무현 최기홍 이광재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전홍용 전홍원 이광우 김근용 황영일
목회자부장 목회자부장 목회자부장 목회자부장
-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안동현 황의관 김구형 최원덕 이계인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용규 권명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조광환 배준식 김영남 이철호 박찬설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최지윤 노영환 박철규 정정길 신상수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강철형 고계소 김영은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은 여국근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김교성 이계인 안장덕 방종영 나광영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전희호 김성호 이상호 고광환 위건광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김기원 김성수 장 훈 임원덕 이희식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최홍철 최홍철 안치원 이태학 정종진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양재복 이성진 조규호 최광규 이재영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전도조사 이정철 ■ 남전도사 이병희 (신교목회)
- 어전도사
-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홍순애 이광우 김갑자 안태호 김정현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조옥자 강덕림 김성진 강희성 최원설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전은희 김성준 김경자 이수경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 전담목장 감입구 ■ 전담목장 시전준
- 전담목장 김소연
- 단기전교사 강기원 (신교목회)
- 협력목장 하효은 (신교목회)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3:00	본 당
	V 오후 5:00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 간	차 량
최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오후 10:00 본당 앞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 소 년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7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7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7호
대 학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청 년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